

13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저녁때 황 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제,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
 하고 물어보았다.
 “아, 들면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연히 회색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회색이 넘침을 보신 숙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
 가를 들 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 주신즉,
 “아, 그럼야 여복 좋았수, 규수 나인 몇 살이구…… 집안
 도 이름 있구…….”
 ㉠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어드는 판이었다.
 “과부래야 이름 아깝지 뭐, 이제 나이 삼십밖에 안 된
 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즉,
 황 진사는 갑자기 낮빛이 핵 변해지며,
 [A] “아 규, 규수가, 시방 말씀한 그 규수가, 과, 과부란 말씀
 유?”
 이렇게 물었다.
 “왜 그류.”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황 진사의 단한 입 가장자리에 미미
 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르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볼불 떨리고 있었다. ㉡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
 딱딱딱 하고 들리었다. 그는 조용히 고갯짓부터 좌우로 돌
 렸다.
 “당찮은 말씀유…… 흥, 과,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
 을…….”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적꿈
 적하며 노기 띤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 “황후암(黃厚庵) 육대 직손이유.”
 하고 다시,
 “황후암 육대 직손이 그레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
 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
 도한 말씀이유.”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수감된 숙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황 진사를 우연히 만난다.

“이리 잠깐 오, 날 좀 보.”
 하고, 그는 나를 한쪽 구석에 불러 놓고 지극히 중대한 사실
 을 발견했노라고 한다. 나는 사정이 전과 다른 형편에 있던 터
 이라 혹시나 이런 데서 무슨 숙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알
 게 되나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긴장한 낯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는,
 “아, 내 조상께서도 모르고 지낸 윗대 조상을 근일에 와서
 상고했구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
 절해 있노라니,
 “왜 그루, 어디 편찮우?”
 한다. 괜찮으니 얼른 마저 이야기하라고 하니,
 “아, 이런 수가…… 온, 내 조상이 대체 신라 적 화랑이구라!”

하고 혼자 감개해서 못 건디는 모양이었다. 그건 또 어떻게 알
 아냈냐고 한즉, 근일에 여러 가지 서적을 상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황 진사를 광화문통에서 만난 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숙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총독부 앞에서 전차를 내려
 필운동으로 들어가노라니 모르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
 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하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더부룩한 거지 아이 몇 놈과 아편 중독자 몇과 그 밖
 에 중풍쟁이, 앓은뱅이, 수족 병신 들이 몇 둘러싼 가운데에
 한 두어 뺨 길이쭈 되는 무슨 과자 상자 같은 것을 거꾸로 얹
 어 놓고 그 위에 삐쩍 마른 두꺼비 한 마리와 그 옆의 똥그란
 양철통에 흠뻑 연고 약을 넣어 두고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위인이 있다.

“두꺼비 기름, 두꺼비 기름, 예헐,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옷
 오른 데도 쓰고, 움 오른 데도 쓰고, 등창, 둔창, 화상, 동상,
 충치, 풍치, 이 앓는 데도 쓰고, 어린이 귀젓 앓는 데, 머리
 가 자꾸 헐어 들어가 하계아다마* 되라는 데, 남녀노소, 어
 른, 애, 계집, 사내 할 것 없이, 서울내기, 시골뜨기, 물을 것
 없이, 그저 누구든지 험 데는 독물을 빼고, 살이 썩는 데는
 거구생신을 하고, 자, 깊이깊이 감춰 두면 반드시 한 번씩은
 찾게 되는 약! 첩첩이 싸서 깊이깊이 넣어 두면 언제든지
 한 번은 보배가 되는 약! 자아,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두꺼
 비 코에서 짠 두꺼비 기름, 자아, 그러면 이 두꺼비가 얼마
 나 무서운 신호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두 눈에 보여 드릴 터
 이니까 단단히 보시오.”

그는 약물에다 흠뻑 고약을 찍어 넣어서 저으며,
 “자아, 단단히 보시오, 우리 몸에 있는 썩은 피가 두꺼비 코
 끝만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흉로일점설, 불철의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고, 약물 접시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 한번 내두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새로 하더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생이올
 시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두 달 전부터 충치를 앓으셔서 병
 석에 누워 계시다가 이 약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별례를 내
 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켈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 곁에는, 전날에 보던
 그 검정색 안경을 쓴 우리 황 진사가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
 고 앉아 있었다.

켈자는 다시 말을 이어,
 ㉤ “선생께서는 또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깊으실 뿐
 아니라 꿈의 쓸개, 오리의 혀, 지렁이 오줌, 쥐의 똥, 고양이
 간 같은 걸로 훌륭한 약을 지어서 일만 가지 병마를 퇴치시
 킬 수도 있는, 말하자면 이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른이
 올시다!”

할 즈음에 순사가 왔다. 에워싸고 있던 거지, 아편쟁이, 수족
 병신 들은 각기 제 구석을 찾아 헤어졌다.

이 꼴을 보신 숙모님은 나에게 눈짓을 하시며 앞서가셨다. 나
 도 숙모님 뒤를 쫓아 한참 오다 돌아다본즉, 아가 연설을 하던
 작자는 빈 과자 상자에 마른 두꺼비와 고약 통을 담아 가슴에
 안고, 황 진사는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순사를 따라 건너편 파출소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김동리, 「화랑의 후에」 -

* 천량: 개인 살림살이의 재산. * 하계아다마: 대머리.
 * 켈자: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사건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보기>는 수업 중 제시된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문의 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황 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보자.

-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황 진사가 과부 중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에 함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군.
- ③ 황 진사가 안경을 쓰고 짐짓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감개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황 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짐짓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 진사는 숙모가 말한 규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숙부가 권해 준 규수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대와 다른 황 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술하게 제시하고 있다.

[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해 가을에 천하의 선비들을 모아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모여든 선비의 수가 8만 5천 8백 명에 이르렀다. 최치원도 과거에 참가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선비로서 으뜸 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로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大殿) 앞에 불러 모은 뒤 시를 짓게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최치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간 거요?”

황제는 최치원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 보게 했다. 최치원이 시를 읊자 황제가 찬탄했다.

“이렇게 지었으니 하늘이 가져갈밖에!”

마침내 최치원을 문신후에 봉했다.

몇 년 뒤 황소(黃巢)*가 3만 군사를 모아 ㉠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격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이었는데 반란군이 모두 투항했다. 이에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領地)를 더 하사하는 한편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애가 비할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황제가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솜을 밤마다 꺼내 빨아 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使者)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도리어 그제 제앙이 돼서 굶어 죽게 생겼군.”

이때 마침 베트남 사신이 공물(貢物)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홀연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선비에게 시 한 수를 지어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를 지어 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 주고 이렇게 말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하다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혼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또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너는 뭐 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

그렇게 말하고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고?”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 아닌 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 이 말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긴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그렇다면만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一)자를 긋더니 펼쳐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최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황소: 중국 당나라 말기의 군용 가운데 한 사람. 한때 당나라의 수도를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일컬음.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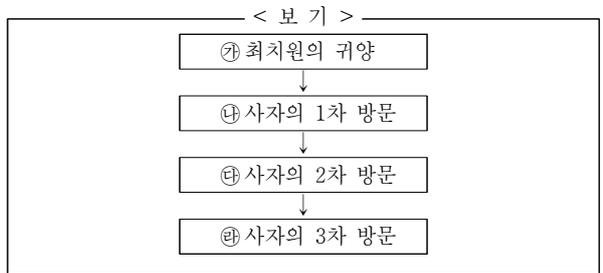
< 보 기 >

「최고운전」은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식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웅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무용(武勇)을 부각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달리 문재(文才)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극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 빈공과: 중국 당나라 때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

- ①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 최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베트남 사신이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중화사상에 회의를 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쌍의 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천하는 것은 주인공의 문제를 부각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겠군.

5. 윗글을 읽고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황제는 ㉠를 통해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죽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 ②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와 ㉢를 지시했다.
- ③ 사자는 ㉡와 ㉢의 결과를 보고할 때 모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최치원은 ㉡와 달리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거것으로 꾸며 사자에게 대응했다.
- ⑤ 황제는 최치원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를 지시했다.

6. ㉠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죽지세(破竹之勢)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좌충우돌(左衝右突)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의 질책을 피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
- ② 천상계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이 미래에 황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신라의 국력이 당나라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황제가 내세우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뜰한 별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㉔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왓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어
말없이 무릎 우 어린 고양이의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 것이고

㉕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빠져진 어갯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㉖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詩人)은 안다

‘도스토이엠히스키’며 ‘쥬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옛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안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낫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계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둑판을 당기는구려

- 백석, 「허준*」 -

* 계사니 : ‘거위’의 방언.

* 허준 : 평북 출신의 소설가로 백석의 절친한 친구.

(나)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
내려 가다가 바로 ㉗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굽

직굽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겨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빼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은 수
저(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거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하
다 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지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
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
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
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
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
니다.

- 서정주, 「침향」 -

(다)

고운 별이 쪼였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라 낚시를 놓으리까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로다

<춘사(春詞) 5>

석양이 비졌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뚫 디어라 뚫 디어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㉘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생각하라

<춘사(春詞) 6>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 뜯어 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㉙ 갈 제는 내뿐이오 울 제는 달이로다

<춘사(春詞) 7>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㉚ 도원(桃源)이 가깝도다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인세 홍진(人世紅塵)이 얼마나 가렸나니

<춘사(春詞) 8>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탁영가(濯纓歌) : 굴원이 쓴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부른 노래로, ‘탁영(濯纓)’은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을 나타냄.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9. (가)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할 때, 담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신’이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치운 다리’로 지나가는 모습
- ② ‘당신’이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를 찾아가 ‘말없이’ 위로하는 모습
- ③ ‘당신’이 ‘어드근한 방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
- ④ ‘당신’이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주는 모습
- ⑤ ‘당신’이 ‘목이 긴 시인’ 앞에서 ‘바둑판’을 당기는 모습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동일한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읊절 수를 조절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일상에서 벗어난 탈속의 공간이다.
- ③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호흡이 필요하다.
- ④ ‘그리운’ 감정은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등의 시어로 강화된다.
- ⑤ ‘질마재 사람들’은 ‘침향’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네 계절을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작품은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삶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구, 반복, 비유, 의성어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작가는 어부의 삶에 의탁하여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했다.

- ① 매 수의 둘째행의 여음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지국총(至智聰) 지국총(至智聰)’과 같은 의성어는 노 젓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그물을 주어 두라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어부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④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인세 홍진(人世紅塵)’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19 주막의 방안

(떡 벌어진 주안상. 송구스레 술잔을 따라주는 조 씨.)

허 주부 : 흐흠.....

(눈을 깜짝깜짝, 염소수염을 쓸어내린다.)

허 주부 : 그러니까 유진이는 미국에서 이쪽 사정을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

조 씨(유진의 홀어머니) : 예.

허 주부 : 그러니까 색시 닥도 매일반이로 모를 티고.....

조 씨 : 예.

허 주부 : 안죽도 황보국이네 기와집서 땡땡거리고 자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씀여. 흐흠.....

(술잔을 또 훌쩍 들이켜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피가 나오길 굴뚝같이 기다리는 조 씨와 윤 영감.)

허 주부 : 흐흠, 그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로군.

윤 영감(우편 배달원) : 무슨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허 주부, 염소수염 쓸어내리며 장시간 심사숙고 끝에-)

허 주부 : 예헛, 인자 쏟아진 물인디 으짤 것이요. 지금 살고 있는 황보국이한테 사정하고 집을 빌려 잔치를 치를 수밖에.....

윤 영감 : (금세 밝아진 표정으로 무릎을 치며) 하모, 하모.

S#20 황 부자 집 안마당

(심통 사나운 얼굴로 떠억 버티고 서 있는 황 부자. 그 앞에 꾸뻑꾸뻑 오금을 못 펴는 세 사람.)

허 주부 : ㉠ 그러니까 자네가 옛날 강 참관 댁 사정을 봐서라도 도망?

황 부자 :

허 주부 : 자네가 인심 한번 후하게 쓰는 날이면.....

황 부자 : (버럭) 아, 천금 걸은 내 돈 주고 산 집인디, 그것이 뭘 소리여!

윤 영감 : (당황해) 황 주사 어른, 잔치날 하루만이라도.....

황 부자 : 어따, 그따우 소리 대신 말드라고!

(절레절레 고개 젓고 평하니 돌아 들어간다.)

허 주부 : (따라가며) 여, 여보게.....

(그러나 사랑방 문 탁 닫는 바람에 그만 주먹 맞은 감투 풀이 되고 마는 허 주부.)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황 부자는 동네 사람들의 성화에 결국 유진의 혼사를 자신의 집에서 치르도록 허락한다. 마을 어른들은 황 부자 집 사랑채에 모여 혼사 준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는데, 혼사 비용 문제가 제기되자 모두 말이 없어진다.

S#50 서낭당 아래

(기괴한 모습의 거목. 울긋불긋 새끼줄 쳐 있고 그 아래 돌무더기. 조 씨 지나가다가 생각난 듯 다가와 돌 한 개 올려놓고 정성스레 절을 올린다.)

조 씨 : 성황님, 성황님...... 굶어 살피 응감하옵소서...... 강 씨 장손 유진이가 혼사를 치른다는디 모든 준비도 안 되었고, 동리 사람들이 나서서 십사일반으로 도와주니 참말 고맙고, 예미 된 마음에 송구스럽어 몸돌 바를 모

르겠으라우.

(㉡ 두 손 짹짹 정성껏 치성을 올리는 조 씨. 이윽고 성황님이 굶어보셨는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만있던 거목이 심하게 흔들린다.)

S#51 황 부자 집 사랑채 안

소리 : 울거니.

(허 주부가 무릎을 친다. 마을 어른들의 기대 어린 눈길들이 일제히 쏠려 오면.)

허 주부 : 윤 주사 어른, 나 좀 봅시다.

(의아해하는 윤 영감을 끌고 나간다.)

S#52 뒤결

(윤 영감을 끌고 오는 허 주부. 건넌방 앞으로 살금살금 오더니)

허 주부 : 윤 주사께서 읍내엘 좀 다녀오셔야 쓰것으요.

윤 영감 : 다녀오라든 다녀오겠지만.....

(㉢ 허 주부, 윤 영감의 입을 막으며 무조건 대답만 하라고 손짓한다. 영문 모르는 채 고개 끄덕이는 윤 영감. 허 주부 허리춤에서 신문지 꺼내 돌돌 말아 쥐고 탁탁 치며)

허 주부 : 이젠 내가 모은 저금통장인디..... 오십만 원이 조금 넘소!

(눈이 뚱그레지는 윤 영감.)

㉣ **S#53 건넌방 안**

(삼층 자재장롱 앞에 치부책 정리하고 있는 황 부자. 귀가 쫑긋해진다.)

허 주부 : (소리) 이 저금통장을 갖고 가 몽땅 찾아다 주세요.

(살금살금 장지문 가까이 다가가는 황 부자.)

S#54 뒤결

윤 영감 : 예? 예.....

허 주부 : (약간 소리 죽여) 이번 혼사 비용일랑 일체 내가 맡기로 했소. 색시댁이 엄청난 부자라는디, 난두 이통에 한밑천 장만히야 쓰겠소.

윤 영감 : 예, 예.....

허 주부 : 이번 혼사 끝나면 유진이한테두 큰 재산이 생기는 모양이요. 유진 엄니하구두 약조를 끝냈는디, 혼사 끝나는 대루 두 곱 쳐서 받기로 했던 마시.

(윤 영감 그제야 알아채고)

윤 영감 : 아, 예, 예...... 지금 당장 다녀올 끼요. 염려 마소.

S#55 건넌방 안

(순간, 더럭 욕심이 나는 황 부자.)

허 주부 : (소리) 이 말일랑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잉?

윤 영감 : (소리) 알았소.

허 주부 : (소리) ㉤ 더구나, 황 부자 녀석한테는 절대 비밀 지키시오잉? 절대로.

윤 영감 : (소리) 염려 마소.

(불같은 욕심이 치밀어 오른 황 부자.)

황 부자 : 저.....저런 여시 같은 놈이.....

(불끈 일어난다.)

1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윤 영감은 유진의 혼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 ② 황 부자는 이전부터 조 씨와 유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③ 조 씨는 유진의 혼사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 ④ 유진은 자기 집이 지금은 황 부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⑤ 허 주부는 유진의 혼사 비용 문제에 황 부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14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를 할 때, ㉠ ~ ㉤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 주부는 황 부자의 위세에 눌려 주눅 든 표정으로 사정하듯 말해야 합니다.
- ② ㉡ : 거목이 조 씨를 바라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카메라를 절을 하는 조 씨의 정면 위쪽에 설치해야겠어요.
- ③ ㉢ : 허 주부와 윤 영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빠르고 강렬한 느낌의 음악을 삽입해야겠어요.
- ④ ㉣ : 이 장면에서는 황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치부책을 클로즈업 해야겠어요.
- ⑤ ㉤ : 허 주부는 약간 소리를 죽여 황 부자 쪽을 향해 또렷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1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창작할 때 작가가 고려했을 점을 추측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장면 [A]에서 장면 [B]로 전환될 때, 장면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A]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B]의 다른 장소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A]의 인물의 대사에 언급된 화면 밖의 인물이 [B]의 처음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 [A]의 인물의 행동과 대사에 대해 [B]에서 다른 인물이 이에 반응하는 장면이 이어지면 두 장면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 ① #19에서 허 주부가 언급한 황 부자를 #20의 처음 장면에 보여주면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거야.
- ② #50의 조 씨의 대사가 #51에서도 이어지게 해서 두 장면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③ #51의 허 주부의 행동이 #52에도 이어지게 하여 장소가 이동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겠어.
- ④ #53의 황 부자가 #52에서 이어지는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어.
- ⑤ #54의 허 주부는 #53의 황 부자의 행동을 예상하여 목소리를 낮추어 대사를 하도록 해야겠어.

빠른정답.

2	3	5	2	3
1	5	1	3	5
2	3	5	3	2

[1~3] (현대소설) 김동리, 「화랑의 후예」

작가 김동리는 1935년 중앙일보 신춘 현상 모집으로 등단했는데, 단편 소설 「화랑의 후예」가 바로 그 등단작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몰락해 버린 양반 계층의 후예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역과 시경을 읊조리거나 문벌과 족보를 들먹이는 등 봉건적 의식을 고수하고,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전근대적 인물 ‘황 진사’의 말과 행동을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의 관찰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사한 일화를 몇 개의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희극적인 소재와 행동을 통해 ‘황 진사’를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의 숙부와 숙모가 젊은 과부를 황 진사에게 중매하려고 하자 ‘황 진사’가 이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은 양반의 자손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 광화문통에서 ‘나’와 우연히 만난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발견했다고 자랑하는 부분, ‘황 진사’가 약장사와 두꺼비 기름을 팔다가 순사에게 끌려가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된 [A]는, 숙부와 숙모가 황 진사에게 과부를 중매하려고 하나 자신은 양반의 자손이므로 과부에게 장가를 들 수 없다며 노여워하고 있는 부분으로,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 부분에는 회상 장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회상 장면을 삽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인 1인칭 관찰자 ‘나’의 관점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보았다’, ‘넘쳤다’, ‘판이었다’ 등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A]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공간은 숙부의 집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감 있는 묘사를 찾기 어렵고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이 글의 ‘황 진사’는 몰락한 양반 계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가문 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조상의 명예에서 위안을 찾는 등 과거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 ‘황 진사’는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면

서 마치 약장사와는 관계없는 존재인 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황 진사’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며 중매도 거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그의 허위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황 진사’가 과부를 중매한 숙부와 숙모에게 분개하는 것은 ‘황후암 육대 직손’인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④ ‘황 진사’가 우연히 만난 ‘나’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의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황 진사’가 순사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면서도 점잖은 양반의 걸음걸이를 고수하는 것은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㉞은 약을 팔기 위해 약장사가 한 허위 또는 과장의 말이다. 말의 표면적 내용은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요약한 것이나, 정황이나 맥락 등을 종합해 보면 진술하게 제시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황 진사’가 젊고 돈 있는 규수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음을 ㉠과 같은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숙모의 말로 인해 규수가 과부임을 알게 된 ‘황 진사’의 분개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 분위기를 ㉡의 시계 소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황 진사’는 ㉢에서 조상의 이름을 거명하며 양반 가문에서 과부를 부인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우연히 만난 ‘황 진사’가 형무소에 수감된 숙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엉뚱하게도 ‘황 진사’는 자신이 화랑의 후예라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나’는 ㉣처럼 반응한 것이다.

[4~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최고운전」은 16세기 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까지의 소설이 대개 사대부적 취향에 의거하고 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에는 민중적 상상력과 감수성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의 생애를 허구적으로 꾸며 영웅화하고 있는데, 권위, 국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에 맞서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주로 문재(文才)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인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것인데,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중국의 황제를 굴복시키는 내용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금돼지 설화, 기아(棄兒) 설화, 수수께끼 설화 등 여러 가지 설화를 수용하여 내용을 구성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다가 최치원이 섬 위에서 승려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곁에서 선녀 수십 명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보고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이것은 기이한 상황을 목격하고 최치원이 비범한 인물이라 여겨서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이지, 베트남 사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증화사상에 회의를 품어 보인 행동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소환하여 질책하던 황제가 최치원의 도술을 보고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최치원이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은 <보기>에 나온 빈공과 급제와, 황소의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보기>의 '토황소격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과 연결할 수 있다. ④ 최치원이 대전 앞에서 지은 시를 한 쌍의 용이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천상계에서도 최치원의 문재(文才)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당나라의 여러 대신들은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라는 생각을 품고 최치원을 모함했다. 이것은 반동 인물들이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인물들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한다.

사자는 최치원의 귀양지를 1차 방문한 후 황제에게 “곧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방문 후에는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의 전달일 뿐 자신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황제는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혼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자가 2차 방문하였을 때 최치원은 ‘너는 뭐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라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사자가 1차 방문하였을 때는 일부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⑤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파악한다.

①은 상대방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파죽지세’이다.

[오답풀이]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의 황소의 반란은 내우(內憂)에 해당하지 외환(外患)은 아니다. ⑤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7.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파악한다.

㉠은 당나라 황제가 신라가 자신의 땅이고, 신라의 왕 또한 자신의 신하라면서 최치원에게 따지듯이 묻자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一)자를 긋고 그 위에 필쩍 뛰어올라 앉은 것

이다. 이것은 당나라 황제의 오만함에 맞서 최치원이 도술을 부려 공중에 앉고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과시하며 당나라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최치원이 황제와 타협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로 볼 때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당나라 황제의 횡포나 신라를 소국이라 여기는 당나라 대신들의 생각으로 볼 때, 당나라의 국력이 신라보다 우월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8~12] (시가 복합) (가) 백석, ‘허준’ / (나) 서정주, ‘침향’ / (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8.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허준’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침향’을 만드는 ‘질마재 사람들’의 높은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허준’과 (나)의 ‘질마재 사람들’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작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때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 ‘당신’은 ‘허준’이다. 화자는 ‘허준’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물로 나타낸다면 긍정적 가치가 구현된 ‘허준’의 모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은 ‘허준’의 모습도 아니며 그로 인해 긍정적 가치도 드러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 및 그 효과를 파악한다.

㉠은 ‘-르 제는 -뿐’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화되는 시적 의미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또는 자연 친화적 정서라고 한다. 이 표현이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②에서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산골 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로 ‘침향’을 만드는 장소이다. 이 표현은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드는 장소를 매우 신중하게 정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침향’의 긍정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곳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탈속의 공간’이라고 한 것은 ‘질마재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③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화자가 고기잡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의 화자가 실제의 어부가 아니라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니 화자는 어부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13 ~ 15] (시나리오) 윤삼육, ‘잔치’

13. [출제의도]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허 주부는 유진의 혼사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불현듯 이를 해결할 방안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허 주부는 자신이 유진의 혼사 비용을 책임지는 대가로 큰돈을 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일부러 황 부자가 듣도록 한다. 이는 황 부자를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유진의 혼사 비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허 주부가 꾸민 계략이다.

14. [출제의도] 효과적인 영화 제작 기법을 구상한다.

#52에서 허 주부는 자신의 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을 꾸미던 중으로, 처음에는 그동안 유진의 혼사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던 윤 영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에서 윤 영감이 허 주부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허 주부가 시키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에서 허 주부와 윤 영감은 갈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빠르고 강렬한 음악을 삽입할 이유도 없다.

[오답풀이] ㉡ ㉠에서 조 씨가 정성껏 치성을 올리는 대상은 거목이다. ㉠ 뒤에는 그에 응감했는지 거목이 흔들린다고 했다. 따라서 ㉡은 거목이 조 씨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장면 전환 방법을 파악한다.

#51의 ‘소리’는 조 씨의 대사가 아니라 허 주부의 대사이다. 대사 뒤에 바로 나오는 무릎을 치는 허 주부의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한다. #51의 ‘소리’는 새롭게 전개될 장면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